“佛心으로 국민 이익 되게”

공무원불자연합회, 화엄사서 신년법회 봉행

전국 공무원불자들이 사찰에서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2월 23일 구례 화엄사를 찾아 1박2일 일정으로 신년법회와 함께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하고 창립 19주년을 축하했다.



전국 300여 공무원불자들이 참여한 행사는 사찰탐방에 이어 입재법회, 특별강연, 문화공연, 다라니 철야기도, 새벽예불, 암자 순례 등이 진행됐다.

김상규 회장은 입재식<사진>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양극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불심(佛心)은 이를 치유하는 좋은 가르침”이라며 “화엄사에서 불심을 키워 국민들에게 이익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前화엄사승가대학장 종곡 스님은 법문에서 “눈에 보이는 경계는 내가 만든 것으로, 불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자유이며 모든 착각으로부터의 자유가 해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의 특별강연과 부산 대운사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케냐 학생들 도운 스님의 원력

군포 만수사 시운 스님, 지구촌공생회 기금 기탁

군포 만수사 주지 시운 스님이 케냐 학생들을 위해 교복값을 지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에 따르면 시운 스님은 케냐 2개 초등학교와 3개 중고등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값을 지원했다. 특히 시운 스님은 지난해 9월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 시찰에 동행하면서 낡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교복을 입고 미소 짓는 올로레라 태공초등학교 학생들.

시운 스님은 “아이들 가슴 속에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기금 기탁 취지를 밝혔다.

군포 만수사는 교복지원 외에도 2015년부터 매년 케냐 학생들을 돕고자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2명의 초등학생과 아동결연을 맺어 생활환경 개선, 학업 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공부, 보현행원 이어지길”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47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졸업생 47명을 배출했다.

화엄불교대학은 2월 24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졸업식<사진>을 개최하고, 화엄불교대학 30기 24명, 학림원 25기 23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학장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불교의 이론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1년간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한종석 · 박두섭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재학기간 성실히 학업에 임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화엄불교대학은 지난 198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2,2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대학원 과정 학림원은 24회 동안 960명이 졸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고창신 자세로 창원불교 중흥을”

제5대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 추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이끌어온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그리고 설맞이 이웃나눔 등 아름다운 활동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 · 적용해 미래 창원 불교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지난 2월 22일 창원 불곡사에서 총회를 열고 제5대 회장에 천태종 마산 삼학자 주지 월도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월도 스님은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이어온 나눔 및 포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 더욱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지면서 통합 연합회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왔다. 월도 스님은 무엇보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더 높은 참여율로 확대 발전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통합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역에 사찰은 많지만 아직 연합회 활동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화합이 부족해서입니다. 종단과 지역 간 나눔은 편 가르기란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마음으로 화합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서로를 대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찰 참여율 확대방안 모색
합리적인 소비로 기금 모아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기여
공익법인 마련해 문화행사도

월도 스님은 지역사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활동 분담금을 줄이고, 별도 기금을 마련해 포교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합회 활동을 위해선 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찰에서 활동비를 지원 받는 방식은 각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 대여료 등 불필요한 활동 경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로 예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스님은 매년 창원시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설맞이 자비나눔 한마당’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매년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 가족과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설 명절에는 5000만원이 넘는 기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내년에 30회를 맞는 창원시불교연합회의 대표 나눔 활동 중 하나다.

“뜻 깊은 나눔 활동이지만 주축이 되는 금강자비회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강자비회의 활동은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를 젊은 회원이 있어 인연이 이어져야 희망적인데 현재로썬 연결고리를 만들긴 힘들어 보입니다. 적은 성금이라도 신도들이 동참하고 십시일반 후원 나눔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덧붙여 스님은 “공익 법인을 창립해 창원시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행사를 주도하면 더욱 발전될 방향으로 나아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도 스님은 춘천 삼운사 주지, 춘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기도 분당 대광사 주지, 천태종 총무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산 삼학사와 김해 해성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취임식은 3월 17일 오전 11시 삼학사에서 열린다.

부산불교 재가 화합 여전히 ‘안갯속’

부산불교신도회, 독자노선
제25 · 26대 회장 이취임식

부산불교신도회 행사 안 알려
연합신도회 “참석 자제” 문자
대화 제안 서로 기다리는 자세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지난해 7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출범했지만 통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길 기다리는 데다 부산불교신도회는 독자노선을 걷고, 총연합신도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5 · 26대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산불교신도회는 함께 통합을 논의해야 할 총연합신도회 측에 행사 개최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총연합신도회 사무국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및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관련 없는 단체이오니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소식은 무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정정복 부산불교신도회 신임회장이 2월 25일 취임식에서 회기를 흔들며 공식 취임을 알리고 있다.

본래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재가단체는 1967년 5월 창립된 부산불교신도회였으나 2008년 11월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양분된 형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계 대화주였던 故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부한 해운대구 소재 토지 기금 사용처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연합회 출범의 원인이 됐다. 당시 기금은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하려 했으나 재정 집행 부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부산불교신도회 측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이 화합을 위해 힘쓰면서 양측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출범을 제안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출범식에 부산불교신도회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통합의 가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측의 통합 가능성이 총연합신도회 출범 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신임 부산불교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정정복 회장은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 역대 회장이 불교발전에 끼친 활동과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한다”며 총연합신도회 측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정 회장은 “화합을 위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먼저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총연합신도회 측 역시 “공식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 소통하고 통합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수동적인 표현이어서 양측의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천도되길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 다라니가 남갤마다라니입니다.

액 자
100,000원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 드리며, 차량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크기 37×37㎝





차량스티커
10,000원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차량 운행 중 미물살생에 대한 과보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지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붓다평화위원회 032)522-5554 / 010-6272-1655